

## 도미니카 선교보고

- 이옥연 선교사/2003.5.23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미니카에서 돌아온 이옥연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그 땅에 뼈를 묻거나 순교하는 것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와 죄송스런 생각이 듭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수고 했습니다.” 장한 일 했습니다.” 하는 인사를 받지만 작은 사역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였고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창립 때부터 섬겨오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성경중심, 복음 중심, 선교 중심의 목회 철학을 통해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6년 전 극동 방송을 은퇴하면서 하와이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예수 제자학교 5개월간의 과정을 통해 선교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선교의 꿈을 갖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 두란노 해외 선교회에서 3여 년간 선교사 선교사들을 섬기다가 선교현장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된 즈음에 어느 한국성도가 온누리교회에 헌납한 교회와 주일학교 어린이를 섬기기 위하여 교회의 문지기로 하나님의 머슴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도미니카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중남미 카브리 해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로 400여 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로 주체 의식이 약하고 빈부의 격차가 심하며 스페인어를 국어로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던 곳은 수도인 산토도밍고에서 약 3시간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마꼬리스라는 작은 마을의 교회입니다. 주일에는 20여명의 어린이와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급식하는 일이 있으며 짧은 에르파놀로 말씀을 전하는 중도에도 의자 밑으로 기어 다니는 장난치는 아이들과 씨름하곤 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급식하는 시간이면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실컷 먹이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이 아픕니다. 평일에도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파스톨 리 하고 자기 친구 부르듯 부르며 무엇을 맡겨라도 놓은 것처럼 물 달라 빵 달라 쥬스 달라고 합니다. 또 맨발로 다니다 다친 상처를 치료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요일 오후,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노라면 어느새 하루가 다간 듯 합니다. 마치 2년이 하루같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짧은 언어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단순한 말씀으로 선포하는 복음과 부족한 급식이라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준 오병이어처럼 주일학교 어린이 수는 늘어가 이웃동네에 교회를 하나 더 개척했고 6개월 전부터는 이웃어른들도 5가정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도미니카에 가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1년 전 어느 날 전도 나갔다 만난 저보다 1살 많은 이웃집 모레노 할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한 일입니다. 그는 그 주일부터 지금까지 한주일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며 어린이들 사이에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분의 노인을 전도함으로써 같이 사는 딸과 손자 그리고 이웃에 사는 딸 아들들이 가족들만 출석하면 교회가 가득 차게 되는 한 분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은 우리를 도미니카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이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동안 배탈 한번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나온 저희에게 2,3개월 전부터 아내가 소변이 불편한 수술도 하게 되고 모기에 물리면 심하게 덧나는 모기 알레르기 심하여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일 잘하는 젊은이에게 맡기고 돌아가라는 신호인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임원 중이던 장모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모레노 할아버지에게 떠나기 열흘전 순예배를 하는 수요일 밤에 어머니가 위독하여 한국에 가야한다고 했더니 언제 오느냐고 다그쳐 물어 될 수 있으면 빨리 돌아오도록 노력할테니 기도해 달라고 하고 만약 못 오면 천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는 눈치를 챘는지 저를 부둥켜 울기 시작했고 떠나는 주일 환송 예배 시에는 아이들 어른들 모두가 이별을 아쉬워하며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선교지를 떠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특히 모레노 할아버지의 믿음이 자라고 가정이 모두 구원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교는 쉬운 것이 아니며 목숨을 거는 각오가 있어야 하고 선교는 나이나 노하우에 상관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가슴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궁정(宮庭)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시편 84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 온누리칼럼 」 제공